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편 137:1-9)

By the river of Babylon

(Psalm 137:1-9)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과 그 문화를 가리키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벨론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가 세웠다면, 자신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세워졌다고 하며 이 두 도시의 대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의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In the Bible, Babylon symbolizes the world and its culture while Jerusalem symbolizes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Jerusalem on earth was occupied by Babylon in BC 586. St. Augustine said in 'The City of God' that "If a man loves himself more than those who built Jerusalem, there are those who love not only themselves but also the God who built it. The contrast of these two cities continues to appear from Genesis to Revelation." The Israelites who were exiled at the riverside in Babylon, forced by their enemies to sing a song of Zion.

1. 강가의 애곡

산악이 많은 팔레스타인과는 대조적으로 바벨론에는 강이 많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강가에 앉아 노래 대신 시온을 생각하며 울곤 했습니다. 포로들의 울음은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조국을 생각하며 우는, 간장을 끓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우는 자는 있으나 나라를 위해 우는 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시온을 위해 울었다는 말은 또한 교회를 위해 울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울음은 참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온갖 신상을 진열해 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망국의 서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막힌 사실 앞에 단장의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2. 버드나무에 걸어둔 수금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에는 포로들이 걸어놓은 수금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고통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로 신세여서 비록 시온의 노래는 부를 수 없었지만 수금을 꺼거나 강물에 던지지 않고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근신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뜻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쾌락을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3. 무서운 저주인가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대책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파괴되었고, 아내들은 강간당했고, 자녀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에돔은 황폐해졌고 바벨론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심판과 저주는 물러갑니다. 우리도 심판 받을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Lamentation at the riverside

Babylon had many rivers compared to Palestine, which had many mountains. The Israelites who were taken as captives often sat at the riverside weeping as they thought about Zion, instead of singing. Captives did not merely shed some tears but wept their hearts out, thinking about their nation. Nowadays there are some people who weep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but how many people weep like this for their nation?

If Zion denotes Jerusalem, this was the place of God's temple. Therefore, weeping for Zion meant weeping for their church. Their weeping was the weeping of confession. The Israelites who should have served God had thrown Him away. They had even displayed all kinds of idols in the temple and had served them. Consequently, the Israelites were met with grief. Faced with the terrible fact that they themselves had been thrown away by God, they lamented with heartbroken laments.

2. A harp hung on the poplar

There were harps here and there that the captives had hung on the poplar branches at the riverside. Their pain was not despair. Although they refused to sing the songs of Zion, they did not break their harps or throw them into the water. Instead, they hung them on the poplar branches, waiting for a better day to come. This was a time of probation. The fact that they did not sing meant fidelity toward God. In Zion, the song of Zion meant praise to God. In Babylon, the song of Zion sung for their enemy's pleasure denoted blasphemy.

3. Fearful curse?

Seeing that their temple was burning, the Israelite residents wept without considering another plan. The castle town had been destroyed; their wives had been assaulted; their children killed. In these circumstances, the people appealed with a sense of justice towards God. Just as God Himself had spoken of judgement at many times, they prayed that God would judge their enemies. And God judges correctly. Edom was eventually ruined, and Babylon destroyed. May God never be insulted.

My beloved christians!

When you confess your sins before God, the judgment and curse of sin will leave you. By knowing that we are sinners under judgment, we must confess and return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before the day of salvation passes by, you and I will be saved and becom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KIMCHI 『신학 학술연구지』 발간되다

우리 주님의 대명을 따라 세계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교회성장과 갱신의 실제적 적용을 연구 확산시키고 있는 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가 마침내 KIMCHI 신학 학술연구지를 매년 1회씩 발간하기로 하고 그 창간호를 내었다.



대 전 총장) 등이다.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문으로 쓰여진 창간호는 4X6배판 268면으로 필그림출판사가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시는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목사를 편집위원으로 모시고 편집고문으로 Sam Logan 박사(세계개혁주의협의회 사무총장), Peter Lillback 박사(웨스트민스터 신대원 총장), Gyoji Nabetani 박사(일본 고베 신학교 전 총장), R. Coleman 박사(Trinity 신대원 전 세계선교대학원장), Tom Houston 박사(세계로잔위 전 국제총무), A. Kinsler 박사(선교사), Paul Wells 박사(프랑스 개혁신학대 총장), Hay-Him Chan 박사(중국인 선교연합회 전 회장)로 청빙하여 발행한 것이다. KIMCHI 신학세미나는 서울교회 창립과 동시에 시작하여 국내적으로는 목회자신학세미나를 1년 2학기 구성하여 현재 37기기를 진행 중이며 수강생 연인원 16,650명이며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 18차 145개국 891명이 참가하여 매년 1회씩 진행해 왔다. 제5차 아시아로잔지도자대회, 미국인민100주년청교도세미나, 세계로잔지도자대회 등을 유치하여 김치가 지원하기도 하였고 올해에는 1910년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를 주관한다.

김치 원장 겸 발행인 이종윤 목사는 본 학술지는 다른 신학논문집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를 세계교회에 나눠주려는데 초점을 맞춘 잡지로서 우리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분석, 비판함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다른 나라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창간호의 주제는 한국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2명의 신학자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를 위시하여 이종성(한국기독교 학술원 원장), 민경배(연세대 명예교수), 신복운(합동신대원 명예총장), 김병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영한(숭실대 전 기독교학 대학원장), 고용수(장신대 전 총장), 박봉배(감신대 전 총장), 이광순(장신대 전 총장), 전호진(고신대 전 총장), 차영배(총신대 전 총장), 조종남(서울신

대 전 총장) 등이다.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문으로 쓰여진 창간호는 4X6배판 268면으로 필그림출판사가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수고하시는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목사를 편집위원으로 모시고 편집고문으로 Sam Logan 박사(세계개혁주의협의회 사무총장), Peter Lillback 박사(웨스트민스터 신대원 총장), Gyoji Nabetani 박사(일본 고베 신학교 전 총장), R. Coleman 박사(Trinity 신대원 전 세계선교대학원장), Tom Houston 박사(세계로잔위 전 국제총무), A. Kinsler 박사(선교사), Paul Wells 박사(프랑스 개혁신학대 총장), Hay-Him Chan 박사(중국인 선교연합회 전 회장)로 청빙하여 발행한 것이다. KIMCHI 신학세미나는 서울교회 창립과 동시에 시작하여 국내적으로는 목회자신학세미나를 1년 2학기 구성하여 현재 37기기를 진행 중이며 수강생 연인원 16,650명이며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 18차 145개국 891명이 참가하여 매년 1회씩 진행해 왔다. 제5차 아시아로잔지도자대회, 미국인민100주년청교도세미나, 세계로잔지도자대회 등을 유치하여 김치가 지원하기도 하였고 올해에는 1910년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를 주관한다.

소아시아를 위한 세계기도의 날 갖기로

5월20일(목)~ 24일(월) -EO에서

우리교회 2007년도 김치세미나에 참여하였던 소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ㄷ ㄷ 기독교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해 4월18일 3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 의한 고문을 당하고 무참히 살해된 순교의 날을 기해 전 세계교회에 ㄷ ㄷ를 위한 기도를 요청해왔다.



2007년 김치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가 있는 곳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려고 2010년 5월20일부터 24일까지 EO에서 ㄷ ㄷ 복음화를 위한 세계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이종윤 목사를 비롯하여 한국어, 영어, ㄷ ㄷ 세 언어권 27명의 강사진을 초청하여 ㄷ ㄷ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인구 7천2백만 중 기독교인의 수가 0.1%도 안 되는 ㄷ ㄷ 이 기도회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교회가 파송한 두 분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한 기도도 당부한다.

제10기 아프리카 말라위 단기 선교팀 모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서울교회 제 10기 아프리카 말라위 단기 선교가 2010년 8월 2일(월)부터 11일(수)까지 9박 10일간 “아프리카 말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로 있게 된다. 아프리카 남동부 말라위에 2007년 서울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은 김용진 선교사는 현지에 기독교교도소를 설립하고, 인근 땅을 개간하여 농장을 짓고 농사를 지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말라위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곡식 프로젝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의료, 이민용, 어린이사역, 방역사역, 근로 봉사, 어린이성경학교 운영팀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본 교회에서 파송한 아프리카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예산되는 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선교활동비용을 포함하여 21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3월 21일(주일)까지 사무국이나 지도목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란다.(문의: 황 광 목사 016-351-7634) 또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3월 8일(월)부터 시작된 세계선교대학을 수강해야 한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라위 단기선교팀은 함께 사역할 귀한 성도님들을

신약개론 몽골어판 출판



이종윤 목사의 신약개론이 중국어판에 이어 이번에는 몽골어로도 번역되어 신학교 교재로 사용된다.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개혁주의신학총서의 일환으로

1989년도 초판 발행 후 이듬해 1990년 2판에 이어 지금까지 9쇄까지 발간되었다. 이종윤 목사의 「제자의 길」도 2009년도 몽골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다.

제6기 설교사역도고 교육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0년 2월 7일(주일)부터 시작된 제6기 설교사역도고 교육을 모두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수료한다.

<수료자>

김애순, 김예환, 김은순, 류순임, 박복순1, 박욱, 백명자1, 윤갑숙, 윤운, 이해순, 전광환, 전배호, 전영돈, 함정희 (이상 14명)

제26회 군목후보생 수련회



지난 3월 9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 26회 군목후보생 수련회가 이종윤목사의 설교와 특강으로 열렸다. 서울교회는 지난 19년동안 쉬없이 군목후보생을 후원하고 훈련하였다.

새가족환영회

3월 20일(토) 오후 4시 430분 - 801호

2010년 제1차 새가족환영회가 3월 20일(토) 오후 4시 30분 801호에서 열린다. 2009년 11월 22일 이후 등록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된 분들 중에도 지난 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오후 4시 30분까지 801호에서 모여 찬양으로 준비한다. 서울교회 등록된 새가족들이 하나 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편지 왔어요

나가나할리 장로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서울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위에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우리 서울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회 개척을 하여 예배와 교회학교 그리고 공부방,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 선교 보고 시 현재의 교회가 좁아 넓은 장소로 이동하여 교회창립예배를

2월 7일(주일)에 드릴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대할 건물 주인의 부친이 별세하여서 상중에는 건물을 임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2주가 연기되어 2월 21(주일)일에 나가나할리 장로교회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리고 치킨 브리안이를 만들어 온 교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습

니다.

저희 사역지는 빌리지이기에 창립예배 시 외부 인사나 한인선교사는 초청하기가 어려워서 저의 가족과 동역자 그리고 성도들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더 나은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땅을 구입하여 교회와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면 보다 나은 교회 부흥과 성장이 기대되며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진리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여 나가나할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이상식, 김정옥선교사 올림.



자리다툼

유복달 권사(4교구)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성공한 자리라 부르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곁에 앉으려고
서로 자리다툼 하고

예수님의 좋은 자리
예수님의 높은 자리는
대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며 희생하는 자리

칭찬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는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런 자리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발을 씻기시는
그 사랑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

유아 세례를 받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김경숙 집사(9교구)

지난 2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만9개월 아들 은찬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신앙으로 말아 기르겠다는 선서를 하고,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받았던 세례만큼이나 떨렸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세례를 받으신 것 만큼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찬이가 혹여 목사님 낫을 가리거나 물세례로 깜짝 놀라 울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열심히 기도 했습니다.

저의 걱정에 반해, 은찬이는 낫잠을 금방 자고 일어나 기분 좋은 얼굴로 세례식 내내 조용히 아빠 품에 안겨 있다가 단상 위 목사님 품으로 안길 때도, 물을 머리에 뿌려 세례 받을 때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찬이에게 평안을 주셨나봅니다. 본인도 세례받은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그날 저녁은 축하해 주는 분들에게 미소로 답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복중에 성별도 생김새도 모르는 은찬이가 임신했음을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감격과 감사로 벽찬 순간순간을 경험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날들이 은찬이와 우리 부부에게 주어질텐데, 제가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생각으로, 문득 세례전 제 마

음처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할 때를 알았고,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제사장 엘리의 말에 받은 줄로 알고 바로 감사할 줄 알았으며,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릴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울바로 교육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왕권체제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30여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저를 길러 주신 친정 어머니의 기도 또한, 제게는 한나만큼이나 훌륭한 분이 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등교길에 저를 끌어안고 제 건강과 안전,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의 그 기도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은찬이가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아들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영아부를 소개합니다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김은숙 전도사



아기들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는 엄마 아빠, 함께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기는 가정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가 '서울교회 영아부'입니다. 서울교회 영아부는 첫돌 전까지(생후 12개월)의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주일 1,2,3부 예배시간이 되면 403호에는 박창희 권사님(부장), 황선희 권사님(차장), 김정애 권사님(차장)이 아기와 엄마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니다. 주일 저녁 찬양예배와 수요일 2부 예배 시간에는 부목사님의 사모님들이 교사로서 섬김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서울교회의 미래이기에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며 쉽 없는 기도로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의 영아기! 엄마와 함께 드리는 예배시간을 통해, 따뜻한 기도의 음성과 깊은 울림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기들이, 언젠가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시작을 위해, 오늘도 서울교회 영아부는 기도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테너 김영석 교수의 찬양으로 드린다. 한양대 음대 졸업후 이태리의 로시니음악원과 오시모아카데미를 졸업하였으며 이태리의 파르마,만토바, 밀라노등을 순회하며 초청 독창회를 가졌다.

귀국후 충남대 음대교수로 있으며 오라토리오 및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는 한편 글로벌 오페라 단장을 맡고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외 2곡을 김현정 성도(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의 반주로 드린다.

강남노회 여전도회 23회 정기총회 3월 25일(목) 오전 10시-소망교회

강남노회 여전도회 23회 정기총회가 3월 25일(목) 10시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차기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한다.

각 전도회 회장 및 총대들은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현미 집사(2교구)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영준에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날, 너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발가벗고 있었지... 엄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긴 아기를 본 적이 없었던단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귀한 선물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다.



르며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이 될거야~"했을 때 엄마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렸단다.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고 있었거든. 3월부터는 초등학교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 나의 아들아,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엄마보다 더 너를 사랑해서 너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엄

누나들 틈에 자라다보니 고집도 세고 소심해서 금방 패치기도 하지만 너는 한글도 금방 떼고 영어도 금방 깨우치고^^ 심지어 수학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엄마, 아빠에게 늘 기쁨을 주면서 자랐지.

1월부터 유년부에 다니게 되면서 올해의 주제 찬양으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엄마랑 잡자기 전에 목청껏 부

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너의 옆에 있을게.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의 선물로 늘 감사하면서 말이지. 훌륭하게 자라다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아들이 되어주길 기도한다.

2010년 3월
엄마가

등정

■ 이종윤 목사는 3월 15일(월) 출국하여 미국(에틀란타, 워싱턴DC 등지)에서 연합집회 인도, 강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영국(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사의 밀씀과 보고를 한 후 4월 20일 귀국합니다. 건강과 영력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하정자 권사(6교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807-201

■ 준공 : 서울현대병원(정형외과) (1교구) 이우대 성도, 박정희 집사 강북구 번1동 463-44

■ 득녀 : (1교구) 오병호 집사, 양세정 집사 가정

■ 주간식당봉사 : 최보전전도회(3.14) 마리아전도회(3.2)

■ 금주의 식사 :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 가정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되도록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복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우시는 길

